

경증치매노인과 가족의 VR 활용도 분석

한정원*

부산가톨릭대학교

Analysis of VR Usability of MCI People and Family

Jeong-won Han*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E-mail : jhan@cup.ac.kr

요 약

현재 경증치매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치매안심센터나 지역의 주간보호센터에서 인지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인지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지침은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 VR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에서 VR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지만 신기술에 대한 친밀도나 활용도에 대한 분석이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경증치매노인을 대상으로 VR 활용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활용도는 친밀도와 활용가능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친밀도화 활용도 모두 높은 편으로 분석되어, 향후 경증치매노인을 대상으로 VR 인지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According to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MCI people can be provided cognitive program at dementia center and daycare center. However, the appropriate definition or guideline of cognitive program is not clear.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adapting VR program at diverse elderly facilities, this paper aims to analysis of VR usability at daycare center. Usability is divided into two section; one is intimacy and the other is usage possibility. In both section, high rate is recorded. Development of VR cognitive program is needed afterwards.

키워드

Dementia, MCI, daycare center, VR cognitive program

1. 서 론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높은 치매 발병비율 등으로 국내 치매환자 수는 2050년 약 300여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1]. 국내 노인인구 대비 치매환자 비율은 2015년 9.8%에서 2050년 15.9% 증가, 2020년 36만명에서 2036년 75만명, 2050년 약 300여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를 둘러싼 사회문제

의 원인은 다양하다. 가치관의 변화, 사별, 이혼, 만혼, 비혼 등 혼인 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인지 장애가 발생시 돌봄 가족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2019년 16.5조원에서 2050년 103.1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치매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역의 주간보호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VR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그 전단계로서 경증치매노인의 VR활용도와 친밀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경증치매노인과

* speaker

가족 각 3인을 대상으로 하여 2021년 11월에 FGI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II. 치매 서비스

치매는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이 하락되고 중증환자 돌봄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이다. 초기경도인지장애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중증치매로 발전하면 치매환자의 실종, 치매가족 자살, 학대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방이 중요하다. 치매는 완치되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가 중증으로 발전하기 전 최대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고 따라서 치매발생 위험 감소를 위한 예방이 치매정책의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3].

중앙치매센터 보고서에 의하면 경도인지장애(MCI)에서 상태를 호전시키는 뚜렷한 약물은 없으나 치료 또는 인지강화훈련 시 치매 발병률을 40%나 줄일 수 있다. 치매는 특성상 다양한 파급력을 가진 질환으로 치매인과 돌봄자, 지역사회와 사회전체의 다차원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따라서 의료적 접근 뿐 아니라 인지/정서 재활 및 사회적 자원 제공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현재 지역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치매서비스는 주로 대면서비스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관, 장기요양 시설 중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다.

서비스의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top-down형식이며 이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또한 개인 맞춤형으로 시행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III. 조사 결과

먼저 경증치매노인의 FGI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연계 치매예방 프로그램 관련 중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며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학습지를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 인식하였다. 기억 회상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본인의 기억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억회상 프로그램과 같이 노령인구의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VR을 이용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자기기를 이용한 프로그램 참여에 의지는 있지만 참여경험은 없고 전자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있었다. 비대면 방식에 있어서 전화를 가장 선호하며 TV를 이용한 프로그램은 기존 TV 수준으로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ICT 기술 기반 프로그램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환자 가족의 FGI결과를 보면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은 경우 실제적인 세부 프로그램 파악이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많은 데이케어센터에서 밴드나 SNS를 활용한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는 한 매일 챙겨보면서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일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경우, 경증치매환자의 신체적, 야외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선호하였고, 이러한 에너지 소비가 환자의 배회 등을 방지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VR에 대한 친밀도는 높았으며 여행이나 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환자가족이 생계유지와 병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자에 대한 정보를 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라도 집에서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활동량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호하였다. ICT 디바이스나 VR을 활용할 때 강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여 개인별 기억을 소환하고 회상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활용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집에서 활용하는 VR이나 ICT 디바이스 이용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기에 환자 가족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쉬운 설명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재가형 ICT 디바이스 적용에 있어서 환자가족의 추가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추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lderly Population Survey. 2022.
- [2] D. W. Lee, S. J. Seone. “Korean National Dementia Plans: from 1st to 3rd” Journal of Korean Med Assoc. Vol. 61. No. 5. pp. 293-303.
- [3] L. Philip, A. Roberts, A. Currie, A. Moart. “Technology for Older Adults: Exploring and Social Interactions” Scottish Geographical Journal. Vol. 131. pp. 131-198. 2015.
- [4] <https://www.nid.or.kr/main/main.aspx>